

## 치 사

우리나라 단청문양과 전통불교미술의 기법을 전승·보존해 온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의 특별기획전 '전통의 여정(勵精)'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의 길목에서 불교미술을 통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이 상쾌한 바람처럼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문화의 근간이 되어온 불교미술은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소중한 발원을 통해 정신의 삶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에도 민족 특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세계와 당당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우수성과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교문화는 민족과 함께한 1700년의 시간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기도 있었으며, 정치·경제적인 위압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으로 위축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의 흥망성쇠는 불교문화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오늘날 전통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대(先代)의 공덕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원력을 다하고, 마땅히 그 부흥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미술이 쉽지만은 않지만 소중한 까닭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고, 불교이념을 반영하는 종교적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합적 사고와 인식을 표출하는 불교미술은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예술가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알리는 포교사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청문양보존연구회의 그간의 노고는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상당히 의미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 없는 계승과 재창조를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격려를 보내며,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6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